

최적의 사운드로 구현 될 화려한 피날레, 드레스덴 필하모닉

드레스덴을 본거지로 하는 대표적인 두 오케스트라가 있다. 오페라 극장의 오케스트라로 오페라와 콘서트를 모두 소화해내고 있는 드레스덴 슈타츠헤르와 콘서트홀에서 상주하는 드레스덴 필하모닉이다. 우리가 7월 7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만날 악단은 바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이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강점은 콘서트홀에 상주하며 교향곡 연주에 주력해왔다는 것이다.

독일 문화의 또 다른 발상지 드레스덴

한국인에게 독일의 가장 유명한 여행지 1위는 바이에른, 2위는 헤센 3위는 베를린이라고 한다. 바이에른 주의 뮌헨, 헤센 주의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베를린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 상업 등 여러 분야에서 독일의 요충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독일의 주요 도시가 있다. 바로 작센 주의 수도인 드레스덴이다. 통일되기 전 동독에 속한 드레스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당해 도시의 역사를 담은 건축물들이 대부분 파괴됐다. 그러나 이 곳은 '엘베강의 피렌체'라고 불릴 만큼 문화와 예술이 도시 전체에 자리했던 곳이다. 피렌체가 르네상스 시대 꽃피운 도시라면, 드레스덴은 바로크 시대에 문화, 예술이 성행했다. 17~18세기 작센의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와 3세는 저명한 미술가들이 작품을 수집했고, 궁정음악의 발전을 위해 음악후원에도 힘썼다. 그 결과 하인리히 쇠츠를 비롯해 슈만, 베버, R.슈트라우스, 바그너 등 음악가들이 거쳐 가는 독일 음악사에서 중요한 도시가 됐고, 이 전통 속에서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보르자크, R.슈트라우스 등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작곡가들이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도 했다. 드레스덴 필하모닉은 1870년 처음 창설됐다. 사실 이전 궁정음악이 발달하는 17~18세기가 지난 후에 생긴 오케스트라이기에 직접적으로 궁정음악의 역사를 잇는다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두터운 문화, 예술의 역사를 지닌 도시의 기운과 그 영향이 오케스트라에 담겨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19세기 드레스덴에 첫 콘서트홀이 생기며 드레스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콘서트홀 관현악단으로 정체성을 지니게 됐고, 2017년 4월 새로 신축된 콘서트홀 문화궁전(Kulturplast)에 입성하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에 더욱 큰 힘을 얻었다.

악단의 역사와 지휘자로 이어지는 독일 색채의 계승

쿠르트 마주어(1967~1972), 귄터 헤르비히(1972~1977), 마렉 야노프스키(2000~2004), 라파엘 프뤼베크데 부르고스(2004~2011) 등의 지휘자가 거쳐 간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이번 내한이 기대되면서도 아쉬운 이유는 상임지휘자 미하엘 잔데를링의 마지막 시즌 투어이기 때문이다. 저명한 지휘자 쿠르트 잔데를링의 아들로 음악가 집안에서 자라 음악가로서의 큰 기대를 갖게 한 미하엘 잔데를링은 2011년 처음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의 지휘봉을 잡아 8년이라는 시간동안 악단과 함께 했다.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와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첼리스트 출신인 그는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해가 깊고,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포츠담 캄머 아카데미 수석 지휘자 및 예술감독, 도이치 현악 필하모닉 수석 지휘자 등 주로 독일 오케스트라들에서 요직을 맡으며 독일 음악에서 큰 힘을 드러냈다.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닉을 떠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악단을 많이 만나보고 싶다는 미하엘 잔데를링은 마지막 무대를 자신의 장기로 채웠다. 슈베르트 <교향곡 8번> '미완성'과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드레스덴 필하모닉과의 마지막을 노래한다.